

제3회 혁신형 SMR(소형모듈원자로) 국회포럼

—“혁신형 SMR의 성공적 개발위해 노력필요” 국회·산·학·연·관 한목소리—



제3회 혁신형 SMR 국회포럼이 4월 18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렸다.

한 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공동주관하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시 을)과 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시 을)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제3회 혁신형 SMR 국회포럼’이 출범 1주년을 맞아 18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렸다.

포럼에는 포럼 공동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김병주 의원, 이용빈 의원(가나다 순)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양금희 의원, 최형두 의원, (가나다 순)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 9명의 국회의원을 비롯해 원자력산업계, 학계, 연구계 및 정부 유관부처 주요 인사가 참석했으며, 국회 일정 등으로 인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이광재 의원, 정희용, 조승래 의원(가나다 순)은 포럼 1주

년을 축하하는 영상메시지와 축전으로 참여했다.

지난해 4월 포럼 출범 이후 세 번째로 개최된 이날 혁신형 SMR 국회포럼은 한수원 김한곤 중앙연구원장의 ‘혁신형 SMR 추진현황 및 인허가 이슈 점검’ 발표를 시작으로, 한국원자력학회장 정동욱 교수의 ‘혁신형 SMR의 경쟁력 제고 및 성공 전략’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급변하는 국내·외 에너지정책 및 원자력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혁신형 SMR의 개발 필요성과 역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공유됐다.

혁신형 SMR 국회포럼은 제도지원분과와 예비타당성조사 지원분과 및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으며, 혁신형 SMR 사업에 대한 국회의 지원과 대국민 공감대 형성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한 사업지원 등의 활동하고 있다.

포럼 공동위원장이인 이원욱 의원은 “혁신형



제3회 혁신형 SMR 국회포럼 전경

SMR의 개발로 원전에 대한 공포를 과학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훌륭하게 개발된다면 잠수함 등 군사력을 증강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영식 의원은 “포럼의 목표는 혁신형 SMR 기술 개발 성공으로 2030년 세계시장 선점과 탄소중립 달성 기여”라며, “이를 위해 규제선진화 및 각종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 등 정책 입법사항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수원 정재훈 사장은 “SMR에 대한 관심이 작년 출범한 혁신형 SMR 국회포럼을 통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감사함을 표하며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게 규제제도의 개선이므로 잘 정비된 규제체계 구축을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날 특별히 참석한 국민의힘 권선동 원내대표는 “혁신형 SMR 국회포럼 1주년을 축하하고, 탄소중립 시대에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은 원자력 발전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더욱더 안전한 SMR를 개발한다면 신재생에너지와 균

형을 이루며 보다 더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므로 원내대표로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30년대 전후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 SMR 시장 선점을 위해 미국, 영국, 러시아 등 원전 선진국을 중심으로 SMR 개발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한수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중심이 되어 지난 2012년 표준설계인가를 받은 SMART 기술을 활용해 경제성, 안전성 및 혁신성이 대폭 향상된 ‘혁신형 SMR’를 개발 중이다. 두 기관은 2028년 인허가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후 본격적으로 원전 수출시장에 뛰어들 계획이다.

우리 정부도 2020년 12월에 개최된 제9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혁신형 SMR의 개발을 공식화했고, 지난해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본심사가 진행 중이며, 다음달 말 최종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KMIF